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기 943-9

공감뉴스 전북을 세계로

#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위발우로 1614(상림동 60)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2월 27일(목) 제 3044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 전북도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를 26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과 도의회 문승우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도의회>

## 도, 중소기업 대상 '전북 특화' 스마트공장 확산 나선다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선정...국비 40억 확보 중기부, 정부-지자체 협업 신 스마트공장 확산모델 제시 스마트공장+맞춤형 지원...농식품 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

전북자치도가 지역 대표 산업인 농식품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중소기업의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선정돼 2년간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중기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특화산업과 스마트공장 연계·육성 의지를 평가해 차등 배정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지자체의 특화산업 육성 의지, 연관 프로그램 운영, 지방비 매칭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전북 자치도를 비롯해 총 3개 시도가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식품 산업을 중점 지원 분야로 설정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유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도내 20개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비 4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기부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0개 농식품 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비(기업당 4억 원)의 50%를 지원한다. 여기에 도는 '전북형 전담매칭'을 활용한 사업계획 컨설팅과 현장 혁신활동을 지원하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사업비의 20% 이내(최대 8천만 원)의 도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에는 신제품 개발, 마케팅·수출, 스마트 HACCP 등 맞춤형 자동화 설비 지원을 병행해 디지털 전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식품 제조공정의 자동화를 촉진해 구인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업 신청은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한달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준호 기자

## 도, 천억 펀드 조성해 바이오산업 육성

**전북자치도, 5년 내 1284억 펀드 조성 150개 바이오산업 육성 2030년까지 5개년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 바이오 허브 구축 기업 지원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북자치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에 추진할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오는 3월 발주, 4월 착수, 12월 납품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바이오 기업 30개사를 유치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29년까지 150개 기업을 추가로 유치하고 이를 위해 레드바이오 분야에 1천284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 및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연구소기업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전북은 국내 최대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에는 바이오 허브 구축, 기업 지원, 연구개발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전략이 담길 예정이다. 바이오산업은 의약, 식품, 종자, 미생물, 첨단농업,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바이오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국내외 바이오산업 동향 분석 ▲전북 바이오산업 현황 및 문제점 진단 ▲바이오 허브 구축 및 기업 지원 전략 ▲연구개발 및 인프라 확충 ▲규제 개선 및 투자 유치 방안 등을 포함한다.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에는 바이오 기업지원센터(가칭 전북 바이오허브) 구축도 포함된다. 센터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 GMP 인증 지원, 공동 활용 장비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는 계획 수립을 위해 바이오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해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은 바이오 기업 유치 확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핵심 기술 기반의 바이오산업은 전북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 KIST유연연구소에 '글로벌 BIO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해 글로벌 인재 2명이 공동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에서는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 얼라이언스 추진단'을 운영해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정소민 기자

## 빅데이터로 본 전북...지역산업 활력 방안 찾는다

**전북자치도 빅데이터 분석사업 완료 보고회 개최 푸드테크·디지털산업·가명정보 3개 분야 빅데이터 분석 끝낸**

전북자치도가 26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담당공무원 및 사업수행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년 빅데이터 분석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푸드테크 산업 △디지털 산업 △가명정보 활용 분야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총 5개월간 추진됐다. 먼저 푸드테크 산업 분석은 푸드테크 산업구조와 기술, 인구 특성, 재료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수준과 지역 맞춤형 전략 확보, 공급망 구축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분석 결과 전북은 푸드테크 특이 출원·등록이 빠르게 증가하며 전국 대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발효식품과 기능성 식품 개발 등 푸드테크 생태계 확장과 창업기업 육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디지털 산업 분석은 2022년까지의 도내 디지털 사업체 분석과 시군별 디지털 산업지수, 디지털 전환 기술 추세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전북 디지털산업 육성에 필요한 현황 분석 목적으로 추진됐다. 분석 결과는 2020년 전국 공통 디지털 사업체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전북은 그간 ICT 서비스업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매출 증가율이 높고, 2022년 사업체 수는 1,871개로 성장 가능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가명정보 활성화 분석은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의 데이터 보유 현황과 가명정보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분석해 2024년 11월에 개소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 농촌진흥청, 전기간접공사 등 도내 기관이 다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가명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법령의 복잡한 규제와 사회적 인식 부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천 도 디지털산업과장은 "이번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전북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2017년부터 8년간 도 자체 수요조사에 따라 34개 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과제에 참여하는 우수부서에는 직무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데이터 기반행정을 장려해 나가고 있다. /김은지 기자

나무시장 운영

정기적금

임야경영, 컨설팅지도

일반·담보대출

별초대행

공과금 자동이체

기계톱 면세유공급

정기예금

퇴비·고추 비료판매

정책자금 대출

임산물 재배지도

인터넷·모바일 banking

조합원 가입

산림조합 상호

**부안군산림조합**  
 063)584-3089, 581-3301

보통예금(큰나무자립예탁)을 하루만 예금해도 금액에 따라 1-2% 특별 이자를 드립니다



# 전주시, 3월부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개시

## 시, 소상공인·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업체당 최대 1억원·3년 동안 금리 연 3% 지원

전주시가 올해도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주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현권 전북은행 부행장, 유장명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전주시와 기관 출연금을 재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금융기관

에서 경영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이다.

시와 전북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3월부터 '2025년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과 협력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총 17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계획했으나, 지속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올해 전 전북은행과 함께 24억 원을 추가 출연해 33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 규모는 이번 확대분을 포함해 총 2000억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전주시 내에 소재한 업력 3개월 이상이고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업체당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 원, 소기업은 1억 원 이내(신용보증재단 기 보증금액 포함 소상공인 1억 원, 소기업 1.5억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대출 기간 5년 중 3년 동안 대출금리 연 3%를 지원해 업체의 금융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산정된 대출금리는 연 5.5%(기준금리에 따라 변동) 수준으로, 시가 연 3%의 이자를 지원해주면 고객 부담금리는 연 2.5% 수준이다.

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은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사업장 및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임대사업장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완산구일 경우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063-230-3347)을, 덕진구일 경우에는 덕진지점(063-230-3385)을 각각 방문하면 된다.

상담 및 서류제출을 완료한 이후에는 보증 심사를 거쳐 사업체당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재단에서 보증서가 발급되면 은행을 방문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jbcredi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시니어 독서치유 프로그램' 운영

## 책놀이지도사, 직접 복지관 방문해 책놀이 활동 진행

전주시는 오는 3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전주지역 4개 노인복지관에서 60세 이상 시니어 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니어 독서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노인인지 책놀이지도사가 직접 복지관을 방문해 책놀이 활동을 진행하고 독서치유 그림책을 지원하는 등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전주시민독서학교의 '노인인지 책놀이 지도사' 과정 수료자 중 노인인지 책놀이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강사가 총 4개 노인복지관을 찾아 각각 10회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3월-5

월)에는 금암노인복지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꽃발정노인복지관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어 하반기(9월-11월)에는 안골노인복지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양지 노인복지관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하고, 독서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독서가 인지 능력을 자극하고 뇌 건강 유지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시니어 독서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지도서관(063-281-6602)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산업육성 10대 추진전략 발표

## AI기반 미래 신산업 및 디지털 기술 기반 영화영상산업 적극 육성, "미래산업으로 범위를 확장 시킬 것"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일 진흥원 신년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는 미래도시 전주 실현'이라는 목표를 '지역 특화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진흥기관'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2025년도 10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전주시 신산업육성을 위한 10대 추진전략은 '도전·혁신의 가치 실현'을 위한 ▲국책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산업 규모 확대 ▲메타버스 기반 가상융합 산업 육성 ▲디지털 기술 기반 영화·영상산업 R&D 및 교육 인프라 구축 ▲한국형 영화 플랫폼 고도화로 특화산업 육성 ▲지역 산업의 DX(디지털 전환) 및 AX(AI 전환) 전방위 지원 ▲기업 성장 단계별 육성체계 구축 ▲지역 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협의회 등이다. 진흥원은 또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꾀하기 위해 ▲지역 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 ▲ESG 경영 실천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의 전략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진흥원은 먼저 첫 번째 추진전략인 '도전·혁신의 가치 실현'을 위해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소규모·지역적으로 진행되던 지역 산업의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를 위해 진흥원은 그간 전주시와 발맞춰 꾸준히 국책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의 외연을 확장해 왔으며, 그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 국책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또 전주역 인근 전북메타버스 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지난해 통과된 정부의 '가상융합산업진흥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9년 문을 연 VR/AR제작거점센터를 시작으로 메타버스티튜터로 명칭이 변경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디지털콘텐츠 기업 육성에 힘써온 진흥원은 지난해와 올해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과 메타버스 아카데미 사업 공모에 각각 선정돼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진흥원은 지난해 전북교육발전특구 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한 'K-영화영상 아카데미 구축사업'으로 진흥원 내에 버추얼 스튜디오를 올해부터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VP(Virtual production) 관련 고교 인제 양성 및 지역과 선도기업간의 R&D 협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전주만의 영화영상 분야 특화사업인 한국형 영화 효과

음원 플랫폼인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www.k-soundlibrary.kr)'에 유통시스템과 AI기반 영상을 맵핑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기구축된 3만3400여 효과음원 DB 외에 추가로 DB를 구축키로 했다.

동시에 진흥원은 지역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거점공간인 '소담스퀘어 전주'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AX(인공지능 기반의 지역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진행된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AI·B/C·DATA 분야 전문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고, 재직자 스케일업 교육자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전주시 산업의 진흥기관으로 지난 20여 년간 진흥원은 전주/전북지역의 IT/CT 산업을 이끌어 왔던 경험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올해는 전주시의 미래산업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영화영상산업을 특화시켜 향후 20년간 전주시의 경제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북소방본부, 익산소방서 공단119안전센터 신청사 개청

## 익산 제1,2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소방 서비스 강화 기대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26일 익산시 신흥동에 위치한 공단119안전센터에서 개청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 박정규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 김성수·김경수·윤영숙 도의원,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 익산의용소방대 연합회, 소방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익산 공단119안전센터는 1976년 영등동에 건립돼 익산 국가산업단지의 성장과 함께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소방장

비 배치와 소방대원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도는 이에 따라 소방청사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추진, 익산소방서 공단119안전센터를 신축해 2024년 5월 착공 후 12월 18일 준공했다.

센터에는 화학차 1대, 구급차 1대 등 2대의 소방차량과 22명의 소방공무원이 배치됐으며, 산업단지 내 재난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소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전북도는 앞으로도 우수한 소방장비 보급과 청사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방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전주시, 지역문화발전 위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개최

전주시는 25일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된 전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윤동욱 부시장)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해 모집공고를 거쳐 문화예술 관계자와 언론인, 시의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 12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부위원장으로는 누벨백미술관 최영희 관장이 선출됐다.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과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등 전주시 문화예술의 주요 정책 등을 자문하고 검토하

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위촉식과 함께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계획(안) ▲민선 8기 주요 사업 ▲2025년 전주시 문화체육관광 주요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5개년 동안 추진할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 계획을 토대로 지역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시민이 함께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총력전

## 윤동욱 전주시장,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만나 지지 요청·전주시체육회 57개 종목단체 대표, 유치 결의 행사 추진

전주시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지 선정을 위한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이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회장을 만나 전주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윤동욱 부시장은 26일 서울올림픽회관에서 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을 만나 전주의 올림픽 유치 당위성 및 강점을 설명하고, 전주의 올림픽 유치 의

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윤 부시장은 현재 시가 조성 중인 야구장과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전주가 올림픽 유치를 준비해 왔음을 상세히 설명했다.

윤 부시장은 이어 오는 27일에는 육연표 대한육상연맹 회장을 만나 2036 전주 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주시의 체육인들도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를 적극 나서고 있다.

전주시의 57개 종목단체 대표들이 26일 열린 전주시체육회 정기총회에서 전주 올림픽 유치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주시체육회 종목단체 대표들은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대의원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주 지지를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동욱 전주시장은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주의 올림픽 유치에 대한 강한 열의를 계속해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은 오는 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진행되는 유치 PT 발표를 거쳐 올림픽종목 대의원(최대 76명)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 전주동물원, 동물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제1의 생태동물원을 지향하는 전주동물원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동물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동물생태해설은 자연과 동물에 대한 호기심과 공감, 존중심을 일깨우고, 자연보전과 환경-사람-동물간의 관계에 대해 관람객과 소통하며 참여자들의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동물생태해설은 평일 오전과 오후 각각 한 차례씩 5세 이상 유·초·중·고 및 대학생과 일반인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 신청은 전화(063-281-6745)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단, 휴식기 및 장마철

인 오는 7월과 8월은 운영되지 않는다.

이에 앞서 전주동물원은 동물생태해설을 담당할 해설사 7명을 선발해 동물담당 사육사들로부터 개별동물들의 특성과 습성, 동물관람 에티켓,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종대 전주동물원장은 "동물생태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한 번 보고 스쳐 지나가는 동물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더하는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동물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2021년과 2022년, 2024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영태 기자

# 전북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투표소 24곳 확정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투표소 24곳을 확정하고 선거인들에게 선거공보물과 투표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거인 수는 6만6천21명으로 선거

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투표 시간, 투표 절차, 지참 신분증 종류, 투표소 현황 등이 명시돼 있다.

/김관 기자

# 도, 기업 인건비 부담 줄여 신중년 고용 촉진

## 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추진...도내 만 40세 이상 69세 이하 신중년 구직자 신청 가능 참여기업 최대 840만원, 신중년에 최대 200만원 지원...기업·구직자 실질적 혜택 모색

전북자치도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신중년(만 40~69세)의 재취업을 돕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신중년 세대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올해 총 112명을 목표로 신중년 채용을 지원하며, 도내 기업이 신중년을 고용할 경우 최대 월 70만원씩 1년간 총 84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을 유지한 신중년 구직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근속장려금이 지급된다.

최근 노동시장에서 풍부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 인력의 가치가 재조명되며, 제조·서비스·기술직 등 다



전북자치도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신중년(만 40~69세)의 재취업을 돕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양한 분야에서 신중년 인재 활용이 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유입이 적은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효과적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중년의 노동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구직자 대상 맞춤형 상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신중년 세대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이 지역 사회와 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시군별 채용 목표 인원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의 일자리 지원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혜민 기자

## LX,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기반행정 '우수'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3년 연속 실태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기반행정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LX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3년 연속으로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정책 이행 수준 점검을 위해 실태평가로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영역, 16개 지표를 점검한다.

LX공사는 개방데이터 확대와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노력에서 만점을 받는 등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개방에 적극 노력을 인정받아 해당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메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개방계획에 의한 누적 이행률 100% 달성과 데이터 제공 주기·신청 및 오류의 적기 처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LX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에서도 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등급을 달성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LX공사는 해당 평가에서 데이터를 기반한 문화가 공공기관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공유 ▲관리체계 등에서 노력을 인정받았다.

/최준호 기자

# 농관원, 친환경축산직불금 확대 개편...3월 4일부터 지원 접수

## 2025년부터 지급단가 3배 인상, 지급한도 상향 및 유기지속직불 신규 도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농관원)은 오는 3월4일부터 친환경축산 직불금(유기축산물) 인정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인 ▲유기축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의 3가지 조건을 갖춰 오는 3월4일부터 28일까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해야 한

다. 농관원은 4월 중에 신청 농가 중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인증기관과 함께 유기축산물 인증정보 유효성과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준수사항 등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가는 직불금 지급대상기간 내 유기축산물을 생산해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2025년도부터는 축종별 지급단가를

평균 3배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유기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해 최대 5년(5회)까지만 지급하던 직불금을 지급 횟수에 상관없이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유기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축산직불제의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http://www.naqs.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순연 원장은 "친환경축산직불 확

대·개편으로 신규 유기축산농가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로 유기축산인증을 받으려는 축산 농가는 친환경축산협회의 유기축산물 인증전문 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준호 기자



(사)대한노인회, 2025년 정기총회 개최...3백여 명 참석

사단법인 대한노인회(회장 이종근)는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광복회 이종찬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에 의원, 남인순·이수진·장종태·최보윤 의원,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서울 용산구의 회 김성철 의장 등 내빈과 중앙회 임원, 전국 16개 시·도연합회장, 245개 시·군·구회회장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조국혁신당 김신민 대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이 영상 축하메시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백종현 의원이 축전을 보냈다.

이날 행사는 송재찬 사무총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김두봉 부회장 겸 전북연합회장의 노인강령 낭독, 내빈소개, 이종근 회장의 인사말, 내빈 축사,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노인회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대한민국의 노인인구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있다"며, "노인의 경력이 존중받고 품격 있는 노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명실상부 노인 대표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 전북자치도,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 설명회 개최...방역체계 강화

## AI·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68개 사업 768억 지원...시군·관계기관 협력 확대, 방역 대응 체계 완벽 구축

전북자치도가 26일 전북도청에서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와 시군 담당자, 동물위생시험소, 관계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가축방역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가축방역사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

단하기 위해 방역 인력·장비를 지원하는 핵심 사업으로, 2025년에는 총 6개 분야 68개 사업에 76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가축방역 대응(26개 사업, 238억) △가축위생 방역지원(3개 사업, 53억) △가축 백신 지원(9개 사업, 136억) △살처분 보상금 지원(2개 사업, 191억) △가축사체 처리 지원(2개 사업, 23억) △자제사업 운영(26개 사업, 127억)이다.

주요 지원사업은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113억), 구제역백신·접종지원(147억), 살처분 보상 및 처리지원(212억), 거점소독 및 통제소 설치·운영지원(70억), 방역활동 인력지원(60억), 가축질병 컨설팅지원(20억)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으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20억) △신종 가축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매개곤충 모니터링(4억) △예방약품 2종 추가

지원(송아지 설사,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 4억) 등 총 5개 사업에 31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만큼, 가축질병 컨설팅지원(20억)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 전주정보문화진흥원·전북IT산업협회, 지역 IT산업 경쟁력 강화 '맞손'

전주정보문화진흥원과 사단법인 전북IT산업협회가 공동주최한 '2025년 전북IT산업 기술교류회'가 26일 전주정보문화진흥원 신산업육성지원센터 산업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 IT기업 간 기술공유와 협력을 모색하고 최신 IT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자리로, 업무협약과 기술

교류 세미나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양 기관은 기술교류회에 앞서 도내 ICT/SW 융합산업 발전 및 사회·경제 혁신을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혁신 방안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적인 기

술교류와 공동 프로젝트를 다방면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어 도내 IT 업계 종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등 신기술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IT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IT산업협회 회원사 솔루션 소개 △인공지능의 핵심인 LLM(Large Language Model, 거대언어모델) 구축의 핵심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례발표 등이 이어졌다.

/김영태 기자

# 도로공사 전북본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전북도 주 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감면단말기 무상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며, 오는 3월부터 관내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도로 전북본부와 전북도가 협업해 추진되어 온 이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총 5,545대를 보급해 왔으며, 금년에도 553대를 선착순으로 무상 제공 할 계획이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비용은 도로공사와 전북도가 전액 부담

하며, 무상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 둔 장애인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다.

▲단말기 신청 ▲단말기 수령 후 지문 등록 절차를 거치면 50% 감면된 통행료 요금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자동차등록증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통합복지카드)를 지참하고 도로 전북본부가 관할하는 영업소에 방문하면 된다.

단말기 수령 후 지문 등록은 도로 전북본부 관내 6개 지사(전주, 부안, 무

주, 논산, 진안, 보령) 또는 전국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도로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편의와 하이패스 이용을 통한 환경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JBT 전북타임스 063-282-9601 063-282-9503 http://www.jeonbuktimes.co.kr

## 전북상협, 신기업가정신 공동 선포식 개최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고 전북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협의회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

## NH농협손해보험, 전북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독려

### 농업수입안정보험, 자연재해부터 농산물 가격하락까지 폭넓은 보장



지난 19일 NH농협손해보험 김영일 부사장(농업보험부문장)은 과수4종 긴급 현장경영을 위해 전북 무주, 진안, 장수 지역에 방문했다. 관내 농협조합장 간담회를 통해 과수4종의 예로사항을 살피고, 신속한 업무대응을 약속했다.

이에 응해 지난 21일 오후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김용재)과 진안농협(조합장 김문종)은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독려를 위한 진안군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한층 강화된 농업

수입안정보험을 독려하고, 전북 농가의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증대 결의를 다졌다.

실제로 전북은 전국에서 가입률 1위(69.5%)를 수성하고 있지만 타 시도의 가입 증가세에 비해 둔화된 상태이다. 농가 및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농사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필수이다.

아울러, 농업수입안정보험은 태풍, 우박, 지진 등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조수해, 화재 등의 피해도 보장하며 가격하락까지 포괄적인 보장이 가능해졌고, 보험료의 50%수준을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35~50%를 추가로 지원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했다.

작물별 가입 시기를 체크 후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해 원하는 작물의 농작물재해보험, 수입안정보험을 가입 할 수 있다.

/최준호 기자

장 김정은)는 지난 25일, 상의 회장 및 사무국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갖고 전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신기업가정신 실천은 기업의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상공

회의소를 중심으로 전국상공회의소와 회원기업들의 참여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선포식에 참여한 상의 회장들은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구성원 존중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와 상생이라는 5가지 실천명제가 담긴 기업선언문에 직접 서명하고 회원기업들과 함께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최준호 기자

# 서거석 전북 교육감, 교육공동체와 소통 강화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정책간담회’ 개최... 전북교육정책 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의견 반영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6일 도교육청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교육공동체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학부모연맹위원장과 전북학생회의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전북교육정책에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서거석 교육감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진로진학 정책’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 등 전북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특히 학생의원들은 진로진학센터 운영,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등 진로·진학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진로진학센터에서는 대학 입학사정관 출신 전문인력 대입지원관과 파견교사

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로진학 상담을 제공하고, 진로융합교육원은 융복합활동 중심의 진로체험과 고입·진학·진로상담 등을 관리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진로진학센터와 진로융합교육원은 진로와 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진로·진학 관련 상담과 진로 체험 등 진로·진학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교육청과 교육공동체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다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 모색에 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6일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정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소중한 기회였다”며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성 학생의원(완산고)은 “학생들도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 퇴직교원 정부포상전수식 개최

황조근정훈장 21명 등 총 103명... 교육발전 기여 공로 인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6일 전주 그랜드힐스汀호텔에서 ‘2025년 2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재직 중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된 2월 말 정년퇴직 유·초·중등 정부포상 대상 교육공무원은 총 103명이다.

수상자는 ▲황조근정훈장 부용초

등학교 신영희 교장 외 20명 ▲홍조근정훈장 외 전주우림중학교 김복희 교사 외 38명 ▲녹조근정훈장 갈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 김경옥 교사 외 22명 ▲옥조근정훈장 전북유니텍고등학교 양운모 교장 외 13명 ▲근정포장 군산진포중학교 전준하 교사 외 2명 ▲대통령표창 인월초등학교 김향숙 교사 등이다. /최성민 기자

## 글로벌 전북대, 우즈벡 저탄소 축산 해결책 제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글로벌학생연합팀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지속 가능한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현장 연구를 통해 저탄소 축산 해결책을 제안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2학기 ‘국제문제해결 창의 프로젝트’ 수업과 연계된 공모전을 통해 글로벌학생 연합팀이 구성되어 진행됐다. 학생들은 실제 지속 가능한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최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연구를 연구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농림부와 축산위

원회, 축산연구소 및 한국의 KOICA 우즈베키스탄사무소 등 여러 관련 기관과의 인터뷰 및 정책 회의를 통해 방안을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농업 강국으로, 전통적인 농업 방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 변화와 탄소 발생 문제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학생 연합팀은 전북대 농생대 이학교 교수팀이 개발한 저탄소 축산 농법을 KOICA의 정부부처-지자체 공공협력 ODA 사업으로 전북도와 협력하여 전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성민 기자

## 도교육청, 시애틀 한국교육원 맞손... 국제교육 교류사업 추진

국제교류수업·문화교류 활동·국제교류 프로그램 등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시애틀 한국교육원과 협력하여 국제교육 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한국교육원의 이용욱 원장과 ‘한국어기반 국제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온라인 영상회의를 했다.

‘한국어기반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은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전북 지역 학생들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의 학생 및 교원이 언어와 문화를 교류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과 시애틀 한국교육원은 이날 ▲국제교류 사업 운영 방향 ▲양기관 협력 구축 방안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학생·교원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2023년 12월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과 교육정책 및 학생·교직원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계기로, 2024년 군산남중과 미국 마운트 타호마 고등학교

(Mount Tahoma High School)와 국제교류수업 운영, 시애틀 현지 글로벌 브릿지 캠프 운영을 통해 링컨 고등학교(Lincoln High school) 학생들과 현지 대면 교류수업을 운영하는 등 국제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이용욱 원장은 “한국어를 매개로 한 국제교류가 학생들에게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어교육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국제교류 사업

을 통해 전북 학생들이 한국어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회의를 토대로 향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교류수업과 문화교류 활동, 학생·교원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 우석대 부속 전주한방병원, ‘암 중점관리병동’ 개소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부속 전주한방병원이 암 환자 치료의 새로운 돌파구 찾기에 나선다.

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은 지난 26일 암 중점관리병동을 개소하고, 암 환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에 집중할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서창훈 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장과 박노준 총장, 박수정 의료원장 겸 전주한방병원장을 비롯해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암 중점관리병동은 병원 5층 공간에 27개 병상(1인실 15개·3인실 12개) 규모로 조성됐으며, 암센터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한방과 양방의 융합 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최성민 기자

## 전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제공·지리적·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교육 격차 해소·학습권 보장 강화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이현웅)은 도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도민들에게 아동·청

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지리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총 6개 분야에서 13개 내외의 평생교육 기관·단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최대 1천만원이 지원된다.

공모 접수 기간은 내달 13일부터 21일 까지 7일간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평생교육 기관·단체는 신청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이 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

민들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인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평생교육부(063-276-8311)로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부주의의 화재 예방하자!

화재발생 원인1위 부주의

1

담배꽂초는 반드시 불이 꺼졌는지 확인!

2

화기는 항상 꺼졌는지 확인!!!

3

쓰레기 소각 및 눈·발태우기 절대 금지!!!

4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전원 차단!!!

사소한행동. 습관이 큰 화재 막을 수 있습니다. 실천하고 행동하여 화재 예방 합시다.



국립군산대 사회봉사센터, 국회 교육위원장상 수상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 사회봉사센터는 지난 26일 국회의원과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교육부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된 국내 대표적인 기후변화 종합 시상이다.

국회 기후변화특별위는 7개 부문에 걸쳐 총 139건의 응모를 접수받아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그 중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봉사센터는 교육부 우수상인 국회 교육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군산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기후 대응 프로그램이 창의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을 돋보였으며 해외 활동으로는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심기 활동, 현지 주민 대상 기후교육을 진행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확산시켰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희망하우스 사업... 도심·농촌 빈집 새 주인 찾는다

정읍시가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도심지역의 빈집을 수리해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로, 귀농·귀촌인, 취약계층, 농촌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빈집 소유자는 최대 25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보일러 교체 ▲부엌·화장실 개량 ▲내·외부 마감공사 등이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빈집은 의무 임대기간(4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되며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달 4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신청된 빈집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진행해 노후 정도, 접근성, 활용성 등을 평가한 뒤 임대인을 선정하고 임차인은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입주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봄바람 따라 떠나는 '아름다움 웰니스 익산 여행'

익산시가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선보인다.

익산시는 (재)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아름다움 웰니스 익산 여행'을 운영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아름다움 웰니스 익산 여행'은 익산이 보유한 전국 최고 수준의 한방산업과 지역 명소를 연계한 1박 2일 여행상품이다. 중장년층 여행 콘텐츠 제공 플랫폼 '노는 법'과 협업해 기획됐다.

이번 상품은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 조성된 한방힐링센터를 시작으로 아가페 정원, 춘포마을을 거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마륵사지와 백제왕궁(왕궁리유적) 등을 방문한다.

'아름다움 웰니스 익산 여행'은 지난 26일부터 지(G)마켓에서 판매되며, 내달 15일부터 매주 주말 총 4회 진행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재)익산문화관광재단(063-918-99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동물용의약품 산업 중심지로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센터' 실시설계 완료...건립 300억 투입·2026년 완공 예정

익산시가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센터' 실시설계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내년까지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센터'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준공하며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다. 평가센터는 동물용의약품 의뢰기기 시험기관으로 등록돼, 품목허가 시 제출되는 유효성·안전성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지는 2단계 사업으로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센터'를 202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센터 건립에는 총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되며,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2,814㎡이다.

센터가 완공되면 신약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시료 생산과 제형 연구를 지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센터 조감도

원하게 돼,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시는 동물헬스케어 산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생산 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물전염병연구소와 연계해 동물용의약품의 효능성·안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미래 먹거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복지사업 확대

다자녀가구차량무료대여·어린이숲놀이공원 조성사업진행...기부자예우제 등 기부 참여 독려

군산시가 지난해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올해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이 목표액의 166%를 달성하면서 시는 기금 활용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운용 심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통해 시는 올해 군산시 지정 기부 사업으로 다자녀가구 차량 무료 대여 지원과 새들 어린이 숲 놀이공원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다자녀 가구 차량 무료 대여는 3자녀 이상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 차량을 무료로 대여하여 교통부

담을 줄이고, 가정 내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는 가정 친화적 사업이다.

또 하나의 추진 사업인 '새들 어린이 숲 놀이공원 조성'은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놀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군산시는 더 나은 성과를 목표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할 다양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4월 추진하는 기부자예우제가 대표적이다. '기부자예우제'는 군산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시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앞으

로 기부자들은 군산시 박물관 벨트화 지역(박물관, 조선은행, 18은행, 진포해양대마공원)과 금강권 지역(3.1운동 기념관, 채만식문학관, 금강미래체험관) 등 주요 관광지와 공연시설 방문 시 무료 입장 또는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군산시는 새로운 고향사랑기부 담례 품 개발을 위한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오는 4월 중으로 담례품 선정위원회도 개최된다. 군산시는 지역 특산품을 기반으로 기부자들에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담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추진

빈집 소유자 최대 2500만 원 리모델링 비용 지원... 의무 임대기간 동안 무상 임대

정읍시가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도심지역의 빈집을 수리해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로, 귀농·귀촌인, 취약계층, 농촌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빈집 소유자는 최대 25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보일러 교체 ▲부엌·화장실 개량 ▲내·외부 마감공사 등이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빈집은 의무 임대기간(4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되며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오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본격화

탄탄한 주민 리더·행복한배후마을·성장하는 거점지·공동체 활성화 목표 설정...다양한 사업 추진

익산시가 오산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 주도형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오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를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한 '농촌협약 사업'의 일환이다. 각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문화·교육·보건·의료 등 필수 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해 배후마을을 주민들의 문화·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지역 자원과 연계해 주민 스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주도형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사업의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탄탄한 주민 리더 ▲행복한 배후마을 ▲성장하는 거점지 ▲공동체 활성화와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오산면 늘산문화복지센터를 거점으로 배후마을과의 연계를 강화해 주민 수요 맞춤형 문화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여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오산면을 시작으로 용안면, 웅포면, 왕궁면, 함라면, 용동면, 춘포면



등에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를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혁 바이오농정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과소화로 침체된 농촌 마을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립박물관, 조선왕실 청화백자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주관 '국보순회전: 모두의 걸음' 공모사업 선정

조선 왕실의 권위를 담은 청화백자가 정읍을 찾는다.

정읍시립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관하는 '국보순회전: 모두의 걸음'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푸른 빛에 담긴 품위와 권위, 조선 왕실 청화백자' 전시를 개최한다.

'국보순회전: 모두의 걸음'은 수도권과 지방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소중한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국보와 보물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박물관에서 순회 전시되며 올해는 전국 8개 박물관이 공모에 선정됐다.

정읍 전시에서는 '백자 청화 투각 모란당초문 향아리(보물)'를 비롯



롯데 조선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다양한 청화백자가 공개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민과 관람객들이 국보급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쉽게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상의·군산시의회 의장단, 간담회 개최

지역 상공업 발전·시민복지 위한 정책 방향 공유 및 의견 교환

군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용)는 지난 24일 군산시 의회 의장단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상공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군산시의회 의장단 참석하여 지역 상공업 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기반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에 시의회 김우민 의장은 상공업계의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상공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One-Port 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하였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베트남 계절근로자 2배...일손 부족 해소

익산시와 협약체결한 베트남 계절근로자 207명, 3~4월 입국

익산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 인력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시는 농촌 지역 일손을 도울 베트남 계절근로자 207명이 오는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입국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는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애아순현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발했다.

지난 1월 진행된 화상면접을 통해 건강 상태와 근로 의지, 농업 경력 등을 심하게 최종 111명을 선정했고, 지난해 제입국 추천자 96명을 포함해 총 207명을 선발했다.

올해는 인력 투입이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 지난해와 달리, 입국 시기를 상반기 한 번으로 통합해 한 사람이 8개월 간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번기 일손 부족이 심각한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인력이 증가한 만큼 무단이탈 방지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베트남 애아순현 측에도 근로자 교육 강화를 요청했으며, 입국 전 화상교육을 통해 무단이탈 방지, 근로기준법, 한국어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 농가에 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217명도 수시로 입국해 농촌 현장에 투입된다.



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217명도 수시로 입국해 농촌 현장에 투입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청년·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저소득 가구당 2천만 원·청년·신혼부부 가구당 최대 5천만 원 지원

정읍시가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LH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자(임주 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총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취약계층을 돕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사업에 1억 1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구당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는 3억 6000만원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5000만원(청년 3000만원, 신혼부부 4000만원, 신혼부부+1자녀 이상 5000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지원되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 고창군, '친환경 쌀생산' 확대 추진

### 신품종 종자보급·현장건설링 등 상호 교류 협력 강화...2027년까지 1000ha로 넓혀

고창군이 친환경 농업인 결의대회와 식량과학원 업무협약을 통해 '친환경 쌀 생산' 확대에 나선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군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친환경 벼 재배농가, 농업, 유통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친환경 쌀 생산 확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창 친환경 쌀 재배 확대에 공감하고, 고품질 브랜드화를 위한 시범사업 참여, 기술보급, 친환경농업직불금 확대에 노력해 가기로 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친환경 쌀 재배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고창군과 식량과학원은 친환경 쌀과 가루쌀 재배 농업인에 대한 신품종 종자 보급 및 실증시험포 운영, 현장건설링,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며 상호 교류를 통한 현장 연구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창군은 친환경 쌀 생산을 현재 230ha에서 2027년까지 100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창군 친환경 쌀은 지난해부터 2년간 제주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833개교 10만9000여명(2023년 기준)에 공급 중이다. 또 수도권 지역 특



고창군이 친환경 농업인 결의대회와 식량과학원 업무협약을 통해 '친환경 쌀생산' 확대에 나선다.

판행사에서 '식어도 맛있는 쌀', '퇴근을 부르는 쌀'로 입소문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고창군에선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송암·여곡 단지에서 저탄소 친환경으로 쌀을 재배하고 있다. 기존 영농작업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탄소 농업기술로 감축해 생산하는 차세대 친환경 쌀이다.

논바닥에 물이 상시 차 있는 관행농업과 달리, 관수와 배수를 적절히 지속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발생은 63%가 줄어들고 농업용수를 28.8% 절감, 수확량 10% 이상 증가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립식량과학원과 함께 고창 쌀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브랜드 확립과 대외 홍보를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마실축제,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

### 콘텐츠 슬로건에 부합...읍면 특색 살린 프로그램 호평

부안군은 지난 25일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11회 부안마실축제는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축제로 '5월의 선물, 가족여행 부안'이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으로 부안마실축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며 "올해 열리는 제12회 부안마실축제에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부안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열리는 제12회 부안마실축제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볼거리로 개최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 부안군, 3·1절 맞이 지역 대표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광복 80주년과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6일 지역 대표 독립유공자인 고제신 지사와 이순호 지사의 묘소를 참배했다고 밝혔다.

고제신(1883~1943) 지사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국권을 빼앗기자 국권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결심하고 1910년 초반부터 부안, 고부, 김제, 고창 등지를 주요 무대로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하거나 독립 자금 마련

에 힘썼다. 이순호(1890~1966) 지사는 1920년 상하이 임시 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으로 3600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했고 지역에서는 빈민구휼에 앞장섰다.

권익현 군수는 "광복 80주년 및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를 통해 애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검산사랑 복지기동대, 올해 봉사활동 본격 시작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최춘열)가 26일 관내 취약계층 4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2025년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마을 통장 및 복지사각지대 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4세대를 대상으로 가스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사용법 및 가스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를 지원 받은 A어르신은 "평소 깜빡깜빡 하는 버릇이 있어 배비를 태우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해 줘서 안심할 수 있게 됐으며 금감했던 사항도 친절히 안내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산사랑 복지기동대는 전기·가스·수도·미용 등 각 분야별 재능이 있는 14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아산면 죽산마을, 리마인드 웨딩 촬영 화제

고창군이 지난 21일 고창군 르네상스웨딩홀에서 아산면 죽산마을 주민 50명과 축하객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리마인드 웨딩 촬영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마을 주민들은 새신랑 새신부와 같이 턱시도와 웨딩드레스 등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가족들이 함께 축하해주는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마을 주민들은 "젊은 시절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 한 장이 없이 부러웠는데 꿈에서 해했던 결혼식을 해본다"고 좋아했으며 "기억에 남을 추억을 선물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성현섭 고창군농촌활력과정장은 "마을 주민분들께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으며,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환경위생과, '군민참여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고창군 환경위생과가 지난 25일 생태복원지 3개소(고창읍 덕산제, 솔재 생태통로, 자연마당 일원)를 찾아 쓰레기수거 등을 진행하며 올해 '군민참여 국토대청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군민참여 국토대청결운동'은 환경위생과를 중심으로 군과 사회단체의 협동으로 12월까지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추진된다.

전통시장, 주요 관광지, 마을진입로 방치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미숙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고창군을 찾아주시는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하루 더 머물고 싶은 생태복원 1번지 고창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읍 도시생태축복원지는 민선8기 환경분야 중요핵심사업으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기 위해 방치된 녹지를 복원하고 습지 및 초화식물원, 워터 등을 조성해 꽃정원, 고창읍성, 자연마당 등과 연계한 산책코스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자원봉사센터, 단체인 협력방안 및 자원봉사 활성화 논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지난 25일 자원봉사 단체장 및 임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김제시 자원봉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를 격려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25년 주요 사업안내 및 자원봉사단체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활동처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고, 자원봉사 인정보상 등을 안내하며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자원봉사센터가 신축된 것은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와 단체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자원봉사센터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지난 25일 자원봉사 단체장 및 임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김제시 자원봉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를 격려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25년 주요 사업안내 및 자원봉사단체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활동처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고, 자원봉사 인정보상 등을 안내하며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자원봉사센터가 신축된 것은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와 단체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대상 찾아가는 순회교육 성료

고창군이 지난 1월21일부터 2월25일까지 한 달간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순회 사전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572명 고용농가의 권역별 읍·면사무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교육에선 ▲인권침해 예방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등록절차 ▲근로계약 및 산재보험 ▲재해예방 안전교육 등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내용이 다뤄졌다.

고창군에선 올해 전국 최대 규모인 26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지역농가에서 일손을 돕는다.

특히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외국인등록 대행 서비스'의 지속적인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2024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농가에서 근로자를 전주까지 데려가지 않아도, 고창에서 편리하게 외국인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지원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업 현장에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유치와 고용농가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며 "외국인등록 대행 서비스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에선 올해 전국 최대 규모인 26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지역농가에서 일손을 돕는다.

특히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외국인등록 대행 서비스'의 지속적인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2024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농가에서 근로자를 전주까지 데려가지 않아도, 고창에서 편리하게 외국인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지원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업 현장에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유치와 고용농가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며 "외국인등록 대행 서비스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파크골프장 조성...국비 지원 요청

### 권익현 부안군수,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에 동진강 고수부지에 친수지구 지정 등 건의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5일 부안군을 방문한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과 동진강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동진강(L=19.2km)은 부안·정읍·김제를 지나 새만금으로 유하하는 하천이며 1927년 동진강으로 최초 고시돼 2020년 5차 동진강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최근 기상변화 및 수문·수리 특성 변화 등을 고려해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동진강 상·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재수

립 중이다. 하천 정책이 기존 치수 중심에서 생활수준 향상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주민 친화적 하천 정비에 위해 치수·친수 병행으로 바뀌고 있어 파크골프장 등 친수시설에 대한 군민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권익현 군수는 송호석 청장을 만나 동진강 하류권역 기본계획 수립 시 동진강 고수부지에 친수지구 지정 및 파크골프장 조성을 건의하며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권익현 군수는 "동진강 하류는 새만금, 부안, 김제, 국도 23호선 등 접근성이 좋은 최적의 입지 조건으로 지방소멸 위기 시기에 부안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온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기본계획 변경 등 부안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보육정책위원회 열어...보육정책 심의·의결

### 2025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등 총3건 주요 안건 논의...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할 것"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5일,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김제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대표, 공익대표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해 보육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2025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2025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농촌지역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원장겸임 특례 인정 등 총 3건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보육사업 시행계획과 보육환경의 변화와 보육수요를 반영한 어린이집 수급계획, 교사 수급이 어려운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김제시는 지난 25일,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김제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한 농촌지역 특례 인정 사항 등이다. 김희옥 위원장(부시장)은 "저출산 등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맞춤형 보육사업 추진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우수등급 달성

고창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전북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를 받아 데이터 기반 행정의 선두 주자로 우뚝 섰다.

행정안전부는 679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공유, 관리 체계에 대한 3개 영역 10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부여한다.

고창군은 공공외과이피 입지 분석 결과물 정책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표준분석모델 정립 공모사업, 데이터 분석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는 등

데이터활용 역량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정형 고창군 행정지원과장은 "데이터를 활용해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진안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 측량비 지원

진안군이 70년대 새마을사업 등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안길과 농로 등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한 분할 측량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 등의 인·허가를 신청할 때 공공용지를 제외하기 위해 개인 부담으로 측량을 진행해야 했다.

또한, 사유지 내 도로 이용과 관련해 소유주와 인근 주민 간 통행·진입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진안군은 2021년부터 도로, 제방, 하천 등에 편입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측량 접수 시 공공용지에 포함된 사유지를 분할하는 경우 측량비를 지원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측량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토지 현황과 신청 목적을 확인한 후, 공공용 사유지 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측량을 신청하고, 측량비 지급 절차를 진행한 후 측량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하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까지 마무리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측량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 무주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농작물 축산피해 방지 나서

무주군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6개 읍면 주민 26명으로 구성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한 멧돼지 전담 포획단은 동절기와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운영하며 고라니를 주로 포획하게 될 봄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26일 총기 사용 안전 수칙 교육 후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활동에 나선다.

수확기인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멧돼지를 비롯해 고라니와 까치, 까마귀, 멧비둘기, 청설모, 꿩 등을 포획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환경과 이지영 과장은 “피해방지단 운영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축산농가, 주민 안전 모두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올해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보상은 물론, 선제적 포획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 무주군, 지사협 정기회의 개최 올해은빛 청년사업 등 추진

무주군은 지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행정위원장 황인홍, 민간위원장 홍진홍) 2025년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4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결과와 2025년 6개 실무분과 기획 사업 및 읍면 협의체 특화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지난해 무주군이 ‘모두가 누리는 무주다운 복지 공동체’를 목표로 추진했던 8대 추진 전략, 33개 세부 사업 및 과업 중 ▲독거노인 홀몸리빙 지원과 ▲사랑을 담은 행복 밥차 ▲건강한 청소년 활동 지원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는 그동안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관협력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라며 “올해도 지역사회 보호 체계 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행복과 만족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 진안군, 명문대 합격자 배출 증가세

### 학습코칭 등 체계적 교육 지원 정책, 관내 고교·명문대 진학률 상승...의미 있는 성과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체계적인 교육 지원 정책을 통해 관내 고교 진학률과 명문대 진학률을 모두 끌어올리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학부모 교육 아카데미,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코칭,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며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그 결과, 체계적인 진로 지원과 농어촌 특별전형 활용 전략에 힘입어 관내 고교 진학률이 2023년 57.4%에서 2024년 68%, 2025년 7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해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는 관내 5개 고교 중 2곳이 특성화고임을 고려할 때 더욱 의미 있는 성과다.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도입

군은 2024년부터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컨설팅’을 도입해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전문 컨설팅 업체와 협력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학교 방문형과 개별 신청형으로 운영해 지난해 4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최대 4회까지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상담 만족도 조사에서는 95%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초학력 향상 및 농어촌 특별전형 활용 전략 강화

입시 컨설팅 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학습 방법에 어려움을 토로함에 따라, 군에서 방학 기간을 활용한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진로캡처’를 운영해 맞춤형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농촌 지역 강점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 정책

진안군은 원어민 화상영어, 주말 스포츠데이, 학교별 특성과 프로그램을 지원해 도심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큰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해외 역사탐방, 자격 취득 지원, 스테디폼 운영 등을 통해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진안에서 중·고교를 졸업하면 전 학기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선순환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학생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군, 저소득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3억6천여만원 투입, 저소득층 아동 159명에 가족 지원 등 4개 영역 25개 프로그램 운영

임실군 드림스타트가 올해도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육구를 파악,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대상은 임실군 저소득층 아동 102세대 159명이며, 올해 3억6천여만원을 투입해 신체 건강, 정서 행동, 인지 언어, 가족 지원 4개 영역에서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각 담당 가정을 방문해 선정부터 종결까지 아동과 가족에 조정을 맞춘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한다.

군은 각 기관의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자원과의 연



임실군 드림스타트가 올해도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계망 구축 및 유대 강화를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

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 임실군의 모든 어린이가 행복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취약계층에 신선식품 지원...바우처 카드 제공

### 대상자 자격 검증 통해 차등 지원, 올해 12월까지 최대 10개월간 지원

장수군은 취약계층의 신선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대상은 장수군의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이며 1인 가구 월 4만원, 2인 가구 월 6만 5천원 등으로 차등 지원한다.

대상자는 선정된 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매달 기존 신청자의 지원 요건 등 자격

검증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 알류, 흰 우유, 잡곡, 두부류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농협 하나로마트, GS25 등 편의점, 온라인몰이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최근 고물가가 계속 돼 식료품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무주군, ‘기초 행정구역 공간정보 DB’ 구축

무주군은 기초 행정구역과 지적 전산 자료를 융·복합한 6개 읍면의 행정리 151개, 행정반 454개의 ‘기초 행정구역 공간정보 DB’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지난 24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 25일까지 이장 회의를 비롯한 현장 실례조사와 현장 측량 등을 완료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기초 행정구역 공간정보는 행정의 기초단위이자 각종 통계 및 사회적 지표 활용 자료로, 그동안 지

명 또는 건물의 명칭 등을 개략적으로 표기함으로써 지리적 위치와 형태, 범위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강미경 과장은 “기초 행정구역은 행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구역으로 행정행위 및 통계의 기준이 된다”면서 “실생활과 밀접한 기초 행정구역에 관한 명확한 경계 자료를 구축해 주민 신뢰를 얻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축된 자료는 부서 간 업무협업 프로세스 제공 및 다양한 분야의 기

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계가 명확해짐으로써 앞으로 보조금 및 지원 사업 등 각종 정책 추진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울 한 해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를 통해 재조사 경계 확정을 100% 달성한다는 계획으로, 원활한 경계 조정과 주민 상담소 운영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 장수군, ‘지자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 선정

### 전국 82개 기관 중 10위, 전년 대비 두 단계 상승 쾌거

장수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2년 연속 혁신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전국 82개 군 단위 기관 중 10위를 차지하며 전년(12위) 대비 두 단계 상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체감형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한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장수군은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한 민생 문제 해결 ▲칸막이 해소 및 협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 ▲미

세세대를 위한 정책 발굴 및 대응에 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군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복지사랑방’을 통해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청정장수 스마트 그린도시 시스템’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2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정책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단체관광객 유치 기대

임실군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하며,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을 한 여행

사 3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와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관광산업이 점차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임실을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여행사는 여

행 3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와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삼일절 맞아 의병장 전해산 장군 묘소 참배

장수군은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신경순)과 함께 지난 25일 의병장 전해산 장군 묘소에서 참배 행사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광복 80주년과 3.1절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참배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경덕 부군수를 비롯해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장수군 보훈단체장 등이 함께하며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렸다.

1879년 임실군 남면에서 출생한 전

해산 장군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로 국권을 강탈당한 후 1908년 50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장수·남원·순창·장성·담양·광주 등 9개 지역에서 70여 차례의 전투를 치르며 크고 작은 전공을 세웠다. 그의 숭고한 희생과 업적을 기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강경덕 부군수는 “애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독립정신이 후세에 널리 계승되길 바라며,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는 ‘일상 속 모두의 보훈’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 2월 말부터 치매안심택시 본격 운영

진안군이 치매 환자에게 제공하는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가 2월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치매안심택시는 지난 1월 말 군과 민간 개인택시조합이 협약 맺고,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이용 어르신과 치매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가정에서부터 치매안심센터와 진안군의료원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교통 서비스이다.

치매 등록 환자들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불편함 없이 참여해 증세 완화를 돕는 데에도 의미를 두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26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 장애자의 가족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매가족 자조

모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함과 함께 활발한 이용이 기대되고 있다.

치매가족 자조모임은 손가락 운동을 통해 소근육 발달과 인지 기능을 향상 시키며 치매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고 공감·소통하며 정서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마음 치유 프로그램이다.

라영현 진안군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안심택시 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다양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앞으로도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이용과 치매 프로그램 참여는 진안군치매안심센터(063-430-8588)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一事一言〉



한국인의 '우리주의'와 국민항쟁(1)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프랑스인들은 자기 나라를 프랑스 대혁명의 나라로 부르면서 자랑스러워한다.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이 유럽 대륙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철저한 시민혁명을 수행한, 저항정신이 투철한 민족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프랑스인들도 한국인들에게는 명함을 내밀기 어렵다. 과거의 (지배층에 의해) 민란이라는 모욕적인 명칭으로 불렸던 장구한 국민항쟁의 역사는 차치하더라도, 한국인들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만도 즐긴 국민항쟁으로 정권을 3-4번이나 교체한, 전무후무한 세계사적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즉 한국인들은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을 퇴진시켰고, 1980년대에는 6월항쟁으로 군부독재를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시켰으며(80년에는 진보적인 세계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광주에서의 영웅적인 무장항쟁과 해방광주도 있었다), 2000년대 들어와서도 박근혜 정권을 탄핵했고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코앞에 두고 있다. 또한 한국인들은 설사 대통령 임기를 마쳤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은 대통령은 감옥에 보냈다. 프랑스인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8혁명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정권교체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단지 현대사만 비교하더라도, 대혁명의 나라라며 어깨에 힘을 주는 프랑스인들도 한국의 국민항쟁 역사를 알게 되면 혀를 내두르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운 국민항쟁의 역사를 써온 것은 한국인들의 집단심리 혹은 민족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는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라는 저서에서 한국인의 대표적인 민족심리를 '우리', 인간중심, 도덕, 비종교, 낙천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중에서도 한국인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민족심리는 단연 '우리'다. '우리'는 운명공동체라는 자각에 기초한 일심동체의 집단이다. 쉬운 예를 들자면 월드컵 거리응원전에 나선 사람들의 집단, 국민항쟁에 펼쳐나선 사람들의 집단이 바로 '우리'라고 할 수 있다. 월드컵 거리응원전이나 국민항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동의 목적은, 비록 일시적이고 제한적일지라도, 사람들에게 운명공동체라는 자각을 가지게 해준다. 한국인들은 이런 자각에 기초한 마음(일심) 한 몸(동체)으로 뭉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다.

한국인들은 먼 옛날부터 개인보다는 '우리'를 더 중시하는 '우리주의'와 그것을 체화한 심리적 특성, 민족성인 '우리성'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상적인 가족 혹은 화목한 가족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우리'의 최소단위 혹은 원형이므로 이를 떠올려보면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다. 이상적인 가족의 구성원들은 항상 개인보다는 가족(집단, 우리)을 우선시('우리주의')하며 가족을 위해서

라면 기꺼이 희생('우리성')하려고 한다. 또한 그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로 뭉쳐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살아간다.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았다. 이 장면을 본 청년들 비종교, 낙천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중에서도 한국인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민족심리는 단연 '우리'다. '우리'는 운명공동체라는 자각에 기초한 일심동체의 집단이다. 쉬운 예를 들자면 월드컵 거리응원전에 나선 사람들의 집단, 국민항쟁에 펼쳐나선 사람들의 집단이 바로 '우리'라고 할 수 있다. 월드컵 거리응원전이나 국민항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동의 목적은, 비록 일시적이고 제한적일지라도, 사람들에게 운명공동체라는 자각을 가지게 해준다. 한국인들은 이런 자각에 기초한 마음(일심) 한 몸(동체)으로 뭉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다.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와 뒀에 따라, 특히 신자유주의가 한국을 점령한 이후부터 한국인 특유의 '우리주의'는 퇴조, 약화된 반면 개인이기주의가 크게 득세하고 강화되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평소에는 개인주의에 기초해 개인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여전히 강한 '우리주의', '우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공동의 목표가 부각되거나 제시되면

즉시 '우리'가 되어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국민항쟁은 개인주의에 완전히 잠식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청년들의 마음 속에도 '우리'가 잠재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 때문에 한국인이 국난 극복에 강한 민족이라고 평가받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국민항쟁 전통은 한국인들의 '우리주의'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항쟁 과정에서 많은 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감동시킨 것 중의 하나는 나눔 문화이다. 항쟁 참가자들을 위해 무료로 음식, 음료 등을 제공하거나 집회장소 근처의 카페나 식당 등에 선결제 하는 문화가 일상화되었다. 농민들의 행진로를 차단한 경찰로 인해 다소 급박하게 시작하게 된 남태령 항쟁에서는 그곳으로 배달음식을 보내주었고, 추운 날씨를 걱정하여 항쟁자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난방바스를 보내 주기도 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연론 민들레에게 게재된 내용을 발췌합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자치도,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평가한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전북자치도가 신속한 민생경제 대책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민생경제 살리기 점검회의'를 개최해 소상공인 지원, 소비 촉진, 기업 지원 등 3개 분야 45개 사업에 대한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3월까지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1,259억 원을 조기 집행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우선 전북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정책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내 소비 진작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추가 소비 진작 시책을 시행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도내 경제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자금 조기 공급 확대는 지역 경제 회복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대비 18.3% 증가한 1조2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도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모니터링하며 2월에 확대 예정된 한시 특별지원자금 1,600억원을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병

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면을 내년까지 연장 추진하며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소비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상권의 활력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역대 소비 여력을 증가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추가적인 예산 편성과 신속한 집행이 병행된다면 지역 경제 회복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처럼 전북도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은 도민들이 경기 회복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다. 각 시군과 경제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정책 집행의 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비 촉진 정책과 기업 지원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지역 경제 전반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전북도가 추진하는 민생경제 정책들은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문화재 열전**

**나한전 석조석가삼존16나한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물, 불교조각, 불상
- 지정일 - 2019년 12월 20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군산시 서수면 함안로 57-29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창간 / 등록번호 전북 가-00022 (윤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부안지국 010-7247-3947
인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고창지국 010-2258-3734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완주지국 010-3672-0308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장수지국 010-8626-6049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경영 및 실정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바다와 나비 / 김기림**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청(靑)무발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시인 약력 : 1908년 함북 성진 출생. 일본 니혼대학 문학예술과와 동북제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함북 경성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1931년 '신동아'에 '고대(苦待)', '날개만 돌치면' 등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1933년 구인회에 가입하고 조선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다. 시집으로 장시의 '기상도'와 '태양종속' 등은 일제 강점기에 출간되고 광복 이후 '바다와 나비', '새노래' 등을 간행했다. 저서로 '시론', '시의 이해', '문장론 신강' 등이 있다. 한국전쟁때 남북로 북한에서 생을 마감했다.

**JBT 전북타임스**

**당신의 하루를 여는 신뢰의 뉴스,  
전북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 5층 대표전화 063)282-9601 팩스 063)282-9604



# 완주의봄, 딸기로 물들다! 제23회 완주삼례 딸기 대축제

완주문화재단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달콤한 봄맛이 축제!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내달 7일(금)부터 9일(일)까지 전북 완주군 삼례농협 뒤 공영주차장에서 '제23회 완주삼례딸기대축제'에 함께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삼례농협과 완주문화재단이 주관하며, 3일간 딸기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공연, 체험,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달콤한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개막식은 내달 8일(토) 오후 2시에 개최된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형 딸기 만들기 퍼포먼스', '딸기 농악 퍼레이드', M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오프닝공연 및 EDM파티', '딸기 쫄나무 자랑대회', '행운권 추첨' 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방문객들은 '딸기 수확 체험', '딸기 상설 판매장', '딸기 스탬프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즐길 수 있으며, 딸기를 활용한 40여 개의 베이커리 및 푸드존, 체험 및 판매존도 상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삼례딸기를 이용하여 만든 '완주삼례 딸기풍당생맥걸리'를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며, 삼례에 위치한 우석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직접 만든 삼례딸기케이크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문화재단 이사장은 "완주문화재단과 완주 DMO가 함께하는 이번 축제가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길 바란다"며, "이 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딸기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축제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삼례농협 및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삼례딸기대축제

Very Berry Sweet Samrye

23th 3.7.(금) ~ 3.9.(일) 삼례농협 뒤 공영주차장  
완주삼례딸기대축제

주요내용

- 태진아, 민지, 짜이, 이희정밴드
- DJ양반장, 김민제(색소폰)
- 딸기쫄나무자랑대회, 대형딸기만들기
- 딸기 스탬프 완벽정복
- 딸기 홍보관 운영
- 딸기 및 지역농산물 판매